

	참 고 자 료	작성과	재난안전산업과
		담당자	과 장 김석현 주무관 안희정
		연락처	044-205-4180 044-205-4189

## 행안부, 재난안전기술 사업화 본격 지원한다

- 중소기업 우수 안전기술 사업화 맞춤형 컨설팅 지원 첫 시행 -

- 행정안전부(장관 진영)는 6월 10일부터 30일까지 재난안전기술 사업화를 위해 컨설팅이 필요한 중소기업을 모집한다.
- 올해 처음으로 시행되는 '재난안전기술 사업화 컨설팅 지원'은 우수 재난안전기술을 제품화하고 판매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애로 사항에 대해 컨설팅을 지원하여 해소할 수 있도록 돕는 사업이다.
- 2019년 재난안전산업 실태조사('18.12월 기준) 결과에 따르면 67,159개 재난안전산업 기업 중 매출액 5억 원 미만이 절반가량인 49.6%, 해외수출 경험이 있는 경우는 1.7%로 대부분 소규모이고 영세하여 우수한 안전기술을 개발하고도 자금력과 시장정보력 부족 등으로 제품화와 판로개척에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.
- 이에, 제품의 경쟁력을 확보하고 사업화 역량을 높일 수 있도록 비즈니스모델 개발, 법률 자문, 상용화 전략 수립, 홍보와 마케팅 등 기업에서 필요로 하는 여러 분야에 대한 맞춤형 컨설팅을 지원하게 되었다.

- 올해는 총 24개 기업을 대상으로 컨설팅을 지원할 계획이며, 기업당 지원금 1,000만원 이내로 총 2억 4천만 원을 지원하게 된다.
-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([mois.go.kr](http://mois.go.kr)) 및 한국능률협회([kma.or.kr](http://kma.or.kr)) 누리집을 통해 「2020년도 재난안전기업 사업화 역량 강화 컨설팅 지원기업 공모」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.
- 윤종진 행안부 안전정책실장은 “중소 재난안전기업에 대한 맞춤형 컨설팅 지원을 통해 기업의 사업화 역량을 강화하고 애로사항을 신속하게 해결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.”라고 말했다.

## □ 추진 배경

- 국내 재난안전산업 기업의 49.6%가 연 매출 5억 이하 사업체로 소규모·영세, 수출 경험은 전체 사업체의 1.7%에 불과한 실정
    - － 마케팅 능력, 시장정보력 부족 등으로 경쟁력 확보에 어려움 호소
  - 우수 재난안전기술의 상용화·제품화·판로 과정에서 겪는 애로사항\*
    - － 해소를 위해 기업의 특성 및 수요에 맞는 컨설팅 지원
- \* 판매 및 수출 분야 애로사항('19년 실태조사) : 판로개척 어려움(35.8%), 시장정보 부족(19.7%)

## □ 주요 내용

- (지원규모) 총 24개 기업, 기업별 최대 1,000만 원 까지 지원, 컨설팅 내용·난이도 등에 따라 한도 내에서 차등 지원
- (추진일정) 공모 신청(~6.30.), 선정평가 및 협약체결(7월 중)
- (지원분야) 상용화·홍보·마케팅, 해외 진출 등 5개 분야를 중심으로 지원

※ 기업별로 분야를 달리하여 최대 2개까지 지원

분야	컨설팅 내용(예시)
제품개발	기술평가, 비즈니스모델(BM) 수립 등
상용화	생산공정 개선, 시장 검증, 인증 획득, 지식재산권 확보, 상용화 전략 등
홍보·마케팅	마케팅·홍보전략, 시장조사, 상품기획 등
무역·물류	해외수출정보, 관세정보, 물류시스템, 수출입 절차 등
해외 진출	해외 유통채널 영업전략, 전시회 참가 기획, 타겟 국가 시장조사 및 바이어 발굴 등 진출 지원, 해외 인증, 해외 공공조달 입찰 자문 등
기타	위 사항 이외에 사업화 역량강화를 위해 컨설팅이 필요한 분야 자문

\* 행정안전부([www.mois.go.kr](http://www.mois.go.kr)) 및 한국능률협회([www.kma.or.kr](http://www.kma.or.kr)) 홈페이지 참조